

One Grain or Many?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February 15, 2024

Aloha MPC ‘Ohana,

Jesus once said,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ground and dies, it abide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John 12:24).

It strikes me that Lent¹ is a season which the Church in its collective wisdom conceived of, long ago, to give believers like us an opportunity to do the very thing which Jesus was talking about in that verse. Because in John 12:24 Jesus is talking about how necessary it sometimes is to let go of one way of encapsulating life (a single seed or “grain of wheat”) in order for a newer, more abundant and more fruitful way of being alive to emerge in its place.

And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ere do come times in most people’s lives when that is indeed the task: to let go of what has been so that new fruitfulness can replace it.

Which sounds easy enough, at first blush. After all, surely common sense would say that letting go of one solitary “grain of wheat” in order for a whole head of ripe grain to grow up in its place would clearly be preferable to just holding onto the single grain itself, right?

Yes, common sense can see that pretty clearly.

But when it comes to actually *doing* it, sometimes that can be a lot harder.

At least it can be harder *for me*. Because I’m a creature of habit. I get used to doing things a certain way, to thinking a certain way, to approaching life a certain way. More than that, I can even become very *attached* to the way I’ve become accustomed to doing things. So attached, in fact, that if anybody (even Jesus!) happens to come along and say, “Hey, let go of that,” my first reaction is to clutch it even tighter – maybe even to cling to it for dear life.

And yet, as Jesus’ little parable in John 12:24 points out, there really isn’t a whole lot of living actually going on inside of a single grain of wheat as long as it’s being held in my hand. It’s packed full of God-given potential, yes – tremendous potential for life and growth and fruitfulness – but all of that will remain locked up inside of it and unable to really “come to life,” so long as the single grain stays

¹ At the heart of the Presbyterian approach to being followers of Jesus, the idea has always been cherished that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ie. that the individual believer’s freedom of conscience in Christ should be respected, as God alone is the one true Lord and Judge of each person). Consequently, among Presbyterians, there is no “requirement” to observe the season of Lent (to “give something up,” etc., etc.). Instead, observing Lent and/ or any of its disciplines is viewed as a matter of individual discernment. So, for example, if one feels that “giving something up for Lent” would help them focus more single-mindedly on God, then that’s great – they should definitely go right ahead and give up something for Lent. But if not, then there’s no need to give anything “Lenty” a second thought at all. All of which means that, for Presbyterians, Lent is optional, not mandatory.)

inside the palm of my hand. I have to let it go, if its potential for life is really going to be unleashed. And, for me, that's hard sometimes.

But Jesus reassures “clutchers” like me in John 12:24 that, if we actually dare to do it – if actually let the single grain of wheat fall to the ground and “die” – then and only then new life *will* come.

So, assuming Jesus was right about that (and I bet he was, don't you think?), as another season of Lent begins, I'm asking myself, *What do I need to let go of, what do I need to give up holding onto, so that the miracle of life can spring forth in fuller and more fruitful ways than what I'm presently able to image, while I'm clutching my one little pet grain of wheat so tightly?*

By the way, how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Maybe that's the key to knowing what we each might want to consider “giving up” this year for Lent...

Me ke aloha,
Pastor Ron

한 알갱이인가, 아니면 다수인가?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예수님께서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사순절 [1](#_ftn1)은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구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오래 전에 교회가 집단적 지혜로 생각한 절기라는 사실이 저에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더 새롭고, 더 풍부하고, 더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을 위해서는 때때로 삶을 캡슐화하는 한 가지 방식(단 하나의 씨앗 또는 “밀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그것이 실제로 임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충분히 쉬운 것 같습니다.

결국, 한 알의 밀알을 놔두고 그 자리에 익은 이삭 전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을 붙잡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_해보면_ 때로는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_나에게는_ 더 어려울 수 있다.

나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일을 특정 방식으로 하고,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 방식으로 삶에 접근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나는 일을 하는 데 익숙해진 방식에 대해 매우 _애착을_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예수님도!)가 우연히 와서 “이봐, 그거 놔”라고 말한다면 나의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더욱 꼭 움켜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위해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작은 비유가 지적하듯이, 한 알의 밀알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한 그 속에서는 실제로 많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성장과 결실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안에 갇혀 있을 것이며 한 알의 알갱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실제로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손바닥.

생명의 잠재력이 실제로 발휘되려면 그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그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나와 같은 “붙잡는 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 실제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면 – 그때에만 새 생명이 올 _것_입니다_.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가정하고(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_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열매 맺는 방식으로 삶의 기적이 솟아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작은 애완동물 밀알 하나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 붙잡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_

그런데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우리 각자가 올해 사순절 동안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아는 열쇠일 것입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

* * *

[1] (#_ftnref1)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장로교 접근 방식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는 생각이 항상 소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각 사람의 참된 주님이시며 재판관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장로교인들 사이에는 사순절을 준수해야 하는 “요구 사항”(“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등)이 없습니다. 대신, 사순절 및/또는 그 훈련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 식별의 문제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사순절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사순절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Lenty”에 대해 전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장로교인에게 사순절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임을 의미합니다.)